

Working Paper 2012-3

#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현황과 시사점<sup>1)</sup>

이동임

2012. 1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1) 이 자료는 “이동임 외(2012). 국가자격의 정보 체계화 방안”에서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현황과 시사점

이동임<sup>2)</sup>

### < 목 차 >

I. 서론 .....	3
II. 한국의 국가자격 정보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6
III. 독일 자격정보의 관리 현황 .....	12
IV. 요약 및 시사점 .....	28
참고문헌 .....	36

### 연구의 개요

- 자격정보에는 자격종목(검정)정보, 자격통계정보 및 자격활용정보가 있음.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 수험자를 포함하여 자격검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보수요자(기업, 연구자, 정책담당자)에게 질 높은 자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된 자격통계정보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기술수준별 인력의 배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나(활용정보 제외) 개별법의 국가자격정보는 부처마다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제각각이고,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는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격정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주제어: 독일, 자격제도, 자격정보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mail: dilee@krivet.re.kr)

# I. 서론

## □ 자격정보의 정의

- 자격정보에는 종목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가 있음.
  - 자격의 종목정보 : 자격시험과 관련된 정보로 특히 자격취득 예정자에게 중요함.
  - 자격의 통계정보 : 응시자 및 취득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자격을 응시하고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인력의 배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자격의 활용정보 :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정보이며, 여기에는 취득자의 고용현황, 임금 및 직무만족도 등이 포함됨. 이 정보는 자격취득 예정자(또는 취득자)에게 필요하며, 또한 자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자격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도 중요함.

## □ 자격정보의 중요성

-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자격정보는 국가의 자격정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보인프라임. 왜냐하면 정책의 형성은 문제 파악, 대안 모색, 의사 결정, 집행, 평가, 정책 개선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정보(데이터)는 문제 파악 및 정책 평가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임.
- 체계적으로 관리된 자격정보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첫째, 진로상담의 질을 개선시킴. 즉 현재 고용센터, 대학교, 지역자치단체, 훈련기관 등에서 취업이나 진로상담시 자격에 관한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약 자격정보가 다양하게 생성된다면 진로상담시 그 자격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것임.
  - 둘째, 체계적으로 관리된 자격활용정보는 취득자의 고용현황 및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결국 활용정보를 통해 개별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도(혹은 효용성)를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자격의 통계정보로는 자격의 수요·공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특히 기술수준별로 전문 인력 배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즉 질적인 인력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음.

##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총괄관리하고 있는 512개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 소관부처가 관리하는 148개 개별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종목정보 및 통계정보는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관리 및 제공되고 있음. 하지만 개별법의 국가자격은 이러한 정보의 관리에 문제가 많음.
- 개별법에 의한 148개 국가자격의 정보는 질적·양적 내용이 부족하고 부처마다 정보의 수준이 제각각임.
  - 국가자격 정보 관리는 개별 부처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와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등 관리의 주체가 각기 다르고, 각 부처 및 (위탁)점정기관의 자격정보 관리운영 수준 및 방법도 상이함.
  - 자격에 대한 (대국민)정보 제공 방식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별도의 웹사이트, 해당 자격자 협회 웹사이트 등 제각각임.
  -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각각 다른 실정임. 종목정보와 통계정보는 어느 정도 생성되나 활용정보는 거의 없음.
    - 현재 여러 유형의 자격정보 중 자격정보 수요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격의 활용정보(취득자의 고용현황, 임금, 직무만족도 등)이나 이는 수요자에게 거의 제공되고 있지 못함.
  - 국가자격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 부재로, 개별 부처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는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 부처 단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Q-NET이라는 체계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생성·보급하고, 심지어 민간자격의 경우도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을 통해 정보

가 통합 서비스되고 있지만, 개별법의 국가자격은 통합된 정보 공급 및 조회 채널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 관리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독일의 시사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몇몇 선진국의 자격정보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지만 독일이 가장 체계적으로 자격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 연구의 목적

- 독일은 자격정보를 어떻게 생성 및 관리하고 있는지,
- 여러 가지 자격정보 유형(종목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 중 어떤 자격정보를 어떻게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 그리고 자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의 통합화 배경은 무엇인지, 즉 어떤 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독일 자격제도가 우리나라 자격정책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연구의 내용

- 제2장은 한국 자격의 정보관리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히 문제가 심각한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제3장에서는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 제4장에서는 독일 자격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자격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II. 한국의 국가자격 정보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 유형별 우리나라 자격정보의 관리 현황

#### ○ 국가기술자격

- 자격의 종목정보: 산업인력공단의 Q-net는 포털로 512개 종목의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자격의 통계정보: 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및 취득자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종목의 통계정보가 포털로 Q-net에서 제공되고 있음.
- 자격의 활용정보: 이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표 1> 우리나라 자격정보 관리 기관별 관리 현황

구분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산업인력공단(Q-net)	부처	검정기관	검정기관	직능원 PQI
종목 정보	▪ 개별 자격종목(검정) 정보	○	○	○	○
	▪ 포털 : 국가차원의 VET 또는 전문직 자격종목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			
통계 정보	▪ 개별 종목별 응시자 및 취득자 정보 생성 및 관리	○		○	○
	▪ (응시자 및 취득자) DB를 통한 자격 통계정보 생성	○		○	○
	▪ 포털 : 국가차원의 VET 또는 전문직 자격 통계 정보 통합(포털) 서비스	○			○
활용 정보	▪ 자격의 활용 정보				

#### ○ 개별법의 국가자격

- 자격의 종목정보: 이 정보는 개별 부처 및 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됨. 하지만 148개 전 종목의 정보가 포털로는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자격의 통계정보: 인별 정보는 검정기관이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정보는 검정기관 및 부처가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통계정보도 포털로 제공

되고 있지 못함.

- 자격의 활용정보: 거의 생성하고 있지 못함.

○ 민간자격

- 자격의 종목정보: 개별 검정기관이 관리하고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 하지만 민간자격 종목 정보를 포털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음. 다만 세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시스템(pqi)에서 관리 및 제공함.
- 자격의 통계정보: 검정기관이 인별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통계정보가 포털로 관리 및 제공되지는 못함.
- 활용정보: 전혀 생성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구체적인 정보 관리 및 서비스 내용 현황

- 자격의 종목정보: 종목정보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임. 다만 교육훈련-직업-자격정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여기에는 정보간 코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함.
- 자격의 통계정보: 응시자 및 취득자 관리는 상당히 체계적인 편임. 그리고 통계정보도 연도별, 등급별, 연령별, 성별로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활용정보: 활용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활용정보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격취득자의 취업 및 이직 경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즉 상당한 자격이 직업분류상의 직업과 관련성이 낮아 직종-직업의 맵 구축이 어렵고 이로인해 자격의 활용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종합하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512개 국가기술자격의 정보는 통일적인 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다만 활용정보가 미흡하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

<표 2> 512개 국가기술자격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종목정보 서비스 현황	기본정보	자격명, 수행직무, 소관부처, 근거법, 변천과정, 실시기관 홈페이지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기관, 시험과목 및 배점, 문제수, 시험방법, 응시자격, 출제경향, 수수료, 시행처, 출제기준, 합격기준		
	우대현황	법령상 우대현황		
	교육훈련 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HRD-net과 연계하여 보여줌		
	직업연계	자격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를 WORK-Net과 링크하여 보여줌		
통계정보 서비스 현황	응시자 관리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관리 : 응시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정보(학력, 수료상태), 경력정보(경제활동상태, 사업체규모, 자격취득무연관성, 근무처자격우대여부), 자격정보(응시종목명, 응시지역, 응시회차, 응시목적, 시험준비경로, 시험준비기간)		
	취득자 관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인터넷 및 방문발급) 관리 : 취득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취득사항(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경력사항(경력과 자격취득종목의 관련성, 현 근무처의 명칭·연락처·소재지), 학력사항(최종학력, 전공)		
	통계자료 제공 범위	자격시험 현황	전체응시, 합격	연도별 필기-실기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필기시험	연도별/등급별 필기 응시자 현황, 연도별/등급별 필기 합격률 현황
			실기시험	연도별 실기 응시자 현황, 연도별 실기 합격률 현황
	자격취득자 현황	연도별/등급별/연령별/성별 현황		
통계자료 제공 유형	사이트 내 또는 파일 형태로 제공			
활용정보 서비스 현황	고용현황, 임금, 취업률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분석 결과

### □ 개별법의 국가자격의 '정보 관리' 현황<sup>3)</sup>

-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는 대부분 검정시행기관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부처가 검정기관의 자격정보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부처의 29.5%에 불과함.

3) 개별법의 국가자격의 소관부처 및 검정기관이 자격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정이 중지되었거나 최근 신설된 자격을 제외한 133개 자격 관리자(부처 및 검정기관)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인별 정보 관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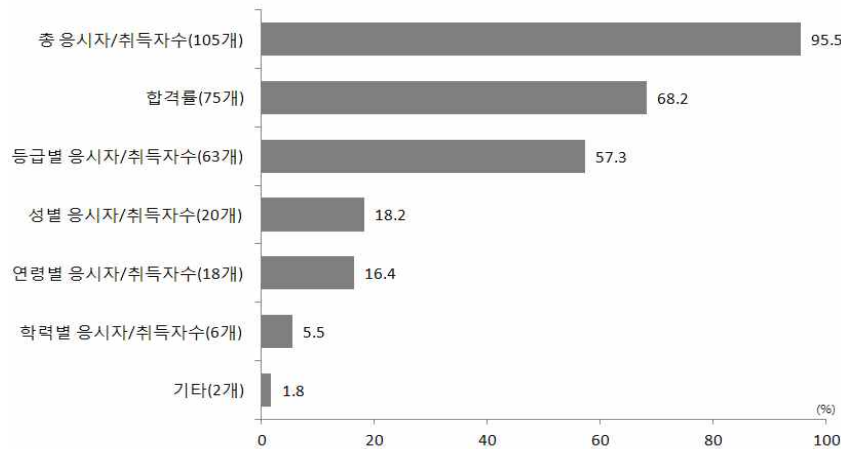
- 부처가 어떻게 응시자 및 취득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주로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5.1%(7개 자격)에 불과함.

○ 통계정보 관리방식

-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정보는 주로 ‘총 응시자 및 취득자 수’ 및 ‘합격률’ 정도이며, 성별·연령별·학력별 통계정보는 매우 미흡함([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자격통계정보 내용(복수응답)

(n=289개, 단위: 자격종목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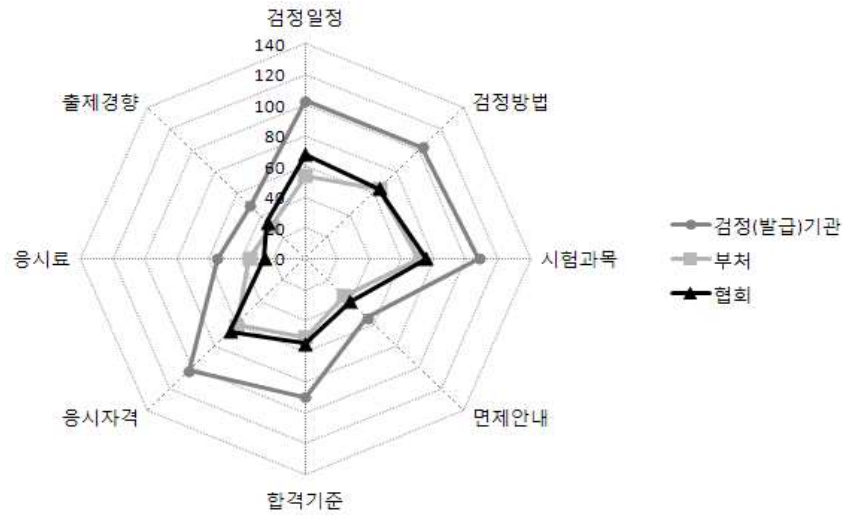
○ 자격의 활용정보

- 부처가 자격의 활용정보를 파악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 133개 자격 중 41개(30.8%) 자격에 불과함. 이 중 취득자의 노동시장 정보(취득자의 임금, 고용현황, 직무만족도 등)를 조사한 경우는 14개(10.5%) 자격이며, 이 정보를 외부로 직접 서비스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단지 2개(1.5%) 자격으로 조사됨.

○ 자격의 종목정보

- 검정형 113개 국가자격 중 검정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자격, 검정 일정 정보는 대체로 80~90% 자격이 제공되고 있으나, 출제경향에 관한 정보는 약 30%, 면제안내는 약 30%, 응시료 정보는 약 40% 자격만 제공함 ([그림 2]참조).

[그림 2] 현재 시행 중인 검정형 국가자격의 시험정보 제공 현황



-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종목정보, 통계정보 및 활용정보는 다양하게 생성 및 관리되고 있지 못하며, 부처 간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개별 국가자격의 정보(종목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를 종합(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하는 기제가 없음.

□ 개별법의 국가자격정보 관리의 법상의 문제점

- 한국의 경우 자격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배경을 관련법에서 확인해 보고자 함.
- 자격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신설법령에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해야 함. 하지만 현재 국가자격의 근거법 74개를 분석한 결과, 자격정보시스템(자격정보체계)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하나도 없음(<표 3> 참조).
- 자격기본법상의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전체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자격기본법 제10조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그 구축이 의무사항이 아님. 즉 ‘정부는 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자격기본법상의 ‘자격취득자 정보관리’

- 자격기본법 제34조 :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를 명시함. 그리고 특히 관리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내용 및 활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 하지만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취득자의 정보관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고, 다만 일부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대장관리’ 및 ‘자격증 발급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도임(<표 3> 참조).
- 법령에서 자격정보 관리를 규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자격이 많은데, 법률에서는 85% 자격이, 시행령에서는 93%, 시행규칙에서는 약 50%자격이 여기에 해당됨.

<표 3> 자격정보 관리 규정 현황

(단위: 종목 수, %)

구분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응시원서 접수대장 관리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기타 관련 정보시스템에 취득자관리	법령에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자격	전체 자격수	
근거법	법	0(0.0)	0(0.0)	12(9.0)	8(6.0)	113(85.0)	133(100.0)
	시행령	0(0.0)	0(0.0)	9(6.8)	0(0.0)	124(93.2)	133(100.0)
	시행규칙	0(0.0)	1(0.8)	64(48.1)	0(0.0)	68(51.1)	133(100.0)

○ 자격기본법의 ‘자격정보 연계’

- 자격기본법의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은 각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이렇게 관리되는 정보 중 일부를 연계하는 것은 시행령 제 21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독일 자격정보 관리현황으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

- 독일의 개별 종목별 자격정보(종목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를 1차적으로 누가 생성하며, 또 얼마만큼의 정보를 생성하며, 이 개별 자격정보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가?
-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격정보는 포털로 관리되는가? 관리된다면 어떤 자격정보가 포털로 관리되며, 어떤 포털에서 관리되며, 이러한 관리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가?

### III. 독일 자격정보의 관리 현황

#### 1.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과 유형

##### ○ 독일 자격의 특징

- 독일 자격의 특징은 높은 현장성과 활용성이며, 이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업의 기술정책 및 숙련을 중시하는 문화와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시행하여 훈련이 내실화되고 산업체가 직접 자격검정을 시행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숙련이 산업 수요에 적절하기 때문임.
- 또한 독일기업이 직무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것도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배경임.
- 게다가 독일 노동시장이 직종별로 형성된 특징이 있는데, 훈련 직종과 자격종목은 이러한 직종별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격취득자가 취업하기에 용이함.
- 그 외에 독일 자격의 특징을 언급하자면 자격검정이 교육훈련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음. 직업훈련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자격은 직업원칙에 따라 검정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즉 직업분류상 세분류에서 훈련 직종이 개설되고 검정종목이 결정됨(<표 4> 참조). 즉 직업 세분류상의 직무크기만큼 훈련내용이 구성되거나 자격종목이 구성되므로 훈련-자격-직업의 연계가 용이함(이동임, 2011).

<표 4> 독일의 직업분류와 훈련 직종/자격종목(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훈련직종+자격종목)
III 제조 관련직	10. 석재 가공 직종 (Steinbearbeiter/innen)	101. 102.	1010.	석재기술자	○
			1011.	석재 및 채석직종	○
			1012.	석수직종	
	11. 건축자재 직종 (Baustoffhersteller/innen)	112.	1120.	토지 및 광물	○
			1121.	콘크리트설치직종	○
			...		
	12. 도자기 기술직 (Keramiker/innen)	121.	1210.	요업직종	○
			1211.	도자기공예직종	○
			1212.	도자기제조직종	

자료: BIBB 내부자료.

-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어 있어 자격정보 또한 교육훈련 정보 및 직업정보와 잘 연결된 특징이 있음.

○ 독일 자격의 유형

- 독일 자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연방차원에서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직업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원화제도 혹은 양성훈련을 수료하면서 취득하는 자격(대표적으로 기능사 자격)과 향상훈련 수료자격(대표적으로 마이스터 자격 혹은 이에 준하는 전문직 자격)이 이에 속함.
- 둘째, 주교육법에 근거하며 학교교육 수료시 취득하는 자격이 있음(교육 자격 혹은 학위).
- 셋째,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고시를 통하여 수여하는 전문 서비스 자격(의사, 변호사, 교사, 약사)이 있음.
- 넷째, 우리나라 기술사와 유사한 전문 기술자격이 있음.

○ 본 연구는 기능사, 마이스터 등 VET 자격과 전문서비스 국가자격인 의사 자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 왜냐하면 기능사, 마이스터 자격은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직업 자격이며, 의사 자격은 전문직 국가자격으로 우리나라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관리<sup>4)</sup>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임.

<표 5>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

구분	연방직업훈련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주 교육법으로 규정되는 자격	개별 법령에 근거한 전문 서비스 국가자격
	수공업 분야	상업 및 서비스분야		
향상 훈련	마이스터 자격	기획전문가(Fachberater) 실무전문가(Fachwirt) 전문가(Betriebswirt)	종합대학 수료 자격: 엔지니어(석사) 전문대학 수료자격: 엔지니어(학사) 전문학교 수료 자격: 테크니션 자격	국가고시 예) 의사, 교사자격 등
양성 훈련	기능사 자격	Fachangestellte	직업전문학교 수료자격: 직업전문학교 졸업장	

자료: 이동업(2011).

4)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임.

## 2. 독일 자격정보 관리 현황 분석틀

-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자격정보는 다음 세 가지임.
  - 첫째, 자격종목정보(시험관련) 둘째, 자격취득자의 통계정보(응시자 및 합격자 DB를 근간으로 생성), 마지막으로 자격의 활용정보임.
  - 따라서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함.

- 자격종목정보:
  - 개별 자격종목정보가 어떤 기관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정보 제공기관 및 정보의 범위 확인)
  - 포탈: VET 자격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또한 전문 서비스 자격의 종목정보를 포탈로 관리·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 자격통계정보
  - 개별 종목별 응시자 및 취득자(합격자) 정보를 누가 어떻게 생성·관리하고 있는가?(검정기관을 중심으로 조사)
  - 응시자 및 취득자 DB를 가지고 자격통계정보를 누가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가?
  - 포탈: VET 자격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자격의 통계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포탈로 관리·서비스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 자격활용정보
  - 국가통계나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정보(취득자의 고용현황, 임금 등)를 누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위 분석틀을 통하여 독일의 VET 자격과 전문서비스 자격(의사자격)의 자격정보 관리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음.
  - 따라서 지금부터 본 글에서는 관련 기관별로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법에 근거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표 6>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기관별 관리현황 파악 내용

구분	VET 자격			전문서비스 자격	통계청	직업 정보망 Berufenet
	BIBB 연방직업훈련 연구소	검정기관				
		IHK 상공 회의소	HWK 수공업 협회	의사 협회		
종목 정보	▪ 개별 자격종목(검정) 정보	○	○	○		○
	▪ 포탈 : 국가차원의 VET 또는 전문서비스 자격종목정보 통합(포탈) 서비스	○ VET				○ VET+ 전문서비스
통계 정보	▪ 개별 종목별 응시자 및 취득자 정보 생성 및 관리		○	○	○	
	▪ (응시자 및 취득자) DB를 통한 자격 통계정보 생성	○	○	○	○	
	▪ 포탈 : 국가차원의 VET 또는 전문서비스 자격 통계 정보 통합(포탈) 서비스	○ VET				○ VET+전 문서비스
활용 정보	▪ 자격의 활용 정보	○	○			

### 3. 독일 자격정보 관리현황

#### 가. VET 자격정보 관리현황

- 본 글에서 다루는 VET 자격은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직업자격이며, 여기에는 수준별로 크게 2가지 유형임.
  - 첫째, 양성훈련과 관련된 이원화제도 내에서 2~3년간 도제훈련을 받고 나면 직종별로 직능단체(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 등)가 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임.
  - 둘째, 향상훈련과 관련된 마이스터 자격이며 이것도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협회 등 직능단체가 시행함.
- 이러한 2가지 유형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가 출제기준을 개발하며 취득자의 추적조사를 통해 자격의 활용정보를 생성함.

5) BIBB가 정보를 포탈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http://www.bibb.de/de/26171.htm>, [http://www.bibb.de/de/ausbildungsprofil\\_31645.htm](http://www.bibb.de/de/ausbildungsprofil_31645.htm); Berufenet에서 정보를 포탈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http://berufenet.arbeitsagentur.de/berufe/berufld.do?pgnt\\_act=goToAnyPage&pgnt\\_pn=0&pgnt\\_id=resultShort&status=K](http://berufenet.arbeitsagentur.de/berufe/berufld.do?pgnt_act=goToAnyPage&pgnt_pn=0&pgnt_id=resultShort&status=K)

- 따라서 자격정보와 관련하여 이 세 기관(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BIBB)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 독일 상공회의소(IHK)<sup>6)</sup>

- 독일 상공회의소는 공법에 근거하는 법인으로 주정부 및 지방도시, 공공 정책에 대해 회원으로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임.
  - 그리고 현장 인력을 숙련시켜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이므로 이 상공회의소의 자격정보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격종목(검정) 정보
  - 상공회의소는 연방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e, BBiG)에 근거한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검정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양성훈련 관련 자격의 검정정보(검정규정, 검정기간, 검정방법 등), 향상훈련 관련 자격의 검정정보(응시요건, 검정기간 및 장소, 검정 담당자, 법적근거 등), 계속훈련프로필에 훈련내용·직업분야·직업에서 요구되는 자질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관련 자격의 훈련정보도 제공함.
- 응시자 및 취득자 인별정보 생성 관리 현황
  - 연방 직업훈련법 제88조에 근거해서 시험 응시자 및 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본정보인 성별, 출생연도, 이수한 훈련직종, 자격종목, 시험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통계정보
  - 상공회의소(IHK)-직업훈련 통계는 상공회의소에서 운영되는 각 자격별 전체 훈련생 및 새롭게 훈련을 시작한 훈련생 수 그리고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응시생수와 합격자수, 응시생 중의 여성 비율 등을 제공함.
  - 이외에 시험 응시생들과 사업장을 위해 시험통계(Pruefungportalstatistik) 사이트가 연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자격에 대한 개별 상공회의소, 주 전체 그리고 연방 전체차원으로 각 자격의 응시생과 합격률, 그 자격에 응시한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분포 및 검정분야별(필기, 실기

6) [www.dihk.de](http://www.dihk.de) 참조



등)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자격 활용정보<sup>7)</sup>

- 2010년 2월에 독일 전체의 여러 분야 사업장 15,333개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검정에 관한 설문조사가 온라인(On-line)으로 시행함.
- 조사내용 : 도제생을 받아들여 훈련을 시키는 사업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취득자 중 몇 퍼센트가 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함. 즉 자격취득자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자격정보와 (직업 및 훈련과의) 연계 현황

- 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자격은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Berufenet(직업정보망)’ 사이트와 연계되어 관련 직업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 자격과 관련된 교육-훈련정보와도 연계되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

□ 수공업회의소(Handwerkskammern, HWK)<sup>8)</sup>

○ 수공업회의소(HWK)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공업을 육성하고 각 수공업 직종의 이익을 조율하며, 한 행정구 내의 모든 수공업자를 법적으로 대표함.

- 이 수공업회의소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격검정을 시행하는데, 이 회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격종목(검정)정보

- 독일의 53개의 수공업회의소와 36개의 수공업전문협회 그리고 수공업 관련 주요경제기관이 연합해서 만든 독일수공업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 ZDH) 사이트는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그리고 검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양성훈련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HWK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sup>9)</sup>를 소개함. 예를 들어 [www.handwerk.de](http://www.handwerk.de) 사이트에서는 직업분류별로 관련된 직업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직업의 프로필과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 관련된 훈련내

7) Ausbildung 2010:Ergebnisse einer IHK-Unternehmensbefragung에서 참조

8) [www.zdh.de](http://www.zdh.de) 참조

9) [www.handwerk.de](http://www.handwerk.de), [www.planetberuf.de](http://www.planetberuf.de) 등

용 및 훈련기간, 그리고 검정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정보 생성 현황

- 수공업회의소에서는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BBiG)과 수공업 규정(Handwerkordnung, HWO)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통계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함. 즉 직업훈련생의 이름, 주소, 성, 생년월일, 학력, 국적 등 인별 정보를 관리함.
- 훈련이 끝나고 자격시험에 응시신청을 하면, 수공업회의소는 응시자 정보에 그간 훈련과정 정보를 연결시킴. 이 응시자 정보에 관리되는 내용은 훈련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 학력, 국적 및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응시시점, 응시과목 등임.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통계정보

- 독일수공업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 ZDH) 사이트는 수공업 직업훈련생에 관한 통계<sup>10)</sup>와 양성훈련시험 및 향상훈련시험(Meisterpruefungen)의 응시자와 합격자수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함.
- 수공업회의소는 연방직업훈련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가 직업훈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통계정보를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며 그 결과는 12월 초부터 공개됨.
- 수공업협회는 검정통계도 직접 제공하고 있음. 즉 연도와 시계열에 따라 직종 및 (주단위/연단위의) 시험응시생과 합격생 그리고 합격률과 증감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응시생은 성별로 구분되어 있고 추가로 재시험 응시자수 현황도 제공함.

○ 자격정보와 (직업 및 훈련정보의) 연계 현황

- 자격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동시에 수요자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www.handwerk.de](http://www.handwerk.de), [www.planet-beruf.de](http://www.planet-beruf.de), [www.handwerksberufe.de](http://www.handwerksberufe.de), [www.handfest-onlind.de](http://www.handfest-onlind.de), [www.handwerks-power.de](http://www.handwerks-power.de) 등 여러 사이트를 수공업회의소 자격정보망과 연계시킴.
- 이 정보망은 자격종목과 관련된 훈련정보(훈련내용, 훈련기간 등) 및 직업전망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함.

---

10) 현황, 신규 훈련생수, 외국인, 조기해약 등

□ BIBB(Bundesinstitut fuer Berufsbildung, 연방직업훈련연구소)<sup>11)</sup>

- BIBB은 독일의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BMBF)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70년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es)에 근거해 설립됨.
  - BIBB는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과 관련된 여러 포털<sup>12)</sup>을 운영하여 자격 및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좀 더 구체적인 BIBB의 자격정보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격종목(검정) 정보
  - BIBB 사이트는 신생직업, 진화직업, 직업훈련프로필, 향상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직업자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
  - 양성훈련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정보 내용: 훈련규정 및 검정규정, 기본교과과정, 훈련개요(훈련기관, 분야, 습득능력)등과 계보(직업생성 및 역사적 발전과정 소개), 새롭게 바뀐 규정에 대한 근거, 그리고 자격과 관련된 훈련생들에 관한 통계<sup>13)</sup>도 제공함.
  - 향상훈련 관련 자격 정보: 자격과 연계된 중요 정보, 예를 들어 임금현황, 추가자격과 이원화 대학과정, 신설자격에 대한 BIBB 설문조사 및 연방과 주 통계청의 자격관련 직업훈련통계 등은 BIBB가 자체 운영하는 포털과 연동됨.
  - 자격과 연계된 전반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는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Berufenet 사이트와 직접 연동됨.
  
- 응시자 및 취득자 인별정보 관리
  - BIBB는 직업훈련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직업훈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방 통계청과 각 주 통계청은 직업훈련법 제88조 1항 (1)~(2)번까지

11) BIBB 홈페이지 참조([www.bibb.de](http://www.bibb.de))

12) 이러한 포털의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 및 계속훈련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연구데이터센터(Forschungsdatenzentrum), 56,000개의 자격과 연계되어 있는 추가 자격 및 대학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usbildungsplus’ 사이트, 젊은이들을 위해 독일 전체의 직업훈련자리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Jobstarter’ 사이트, 이외에도 자격취득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직업훈련보고서(Berufsbildungsbericht)를 위해 직업훈련과 계속훈련에 대한 정보 및 분석내용, 취득자 통계 등을 제공하는 ‘Datenreport’ 사이트 등이 있다.

13) 신규자격증, 졸업생, 훈련생,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맺은 계약의 해지율 등

나열된 자격 관련 개별 인별정보를<sup>14)</sup> 연방직업훈련연구소에 보내야할 의무가 있음(직업훈련법 제 88조 4항).

- 수공업회의소의 경우도 BIBB가 직업훈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업훈련생의 현황 및 검정관련 통계를 송부해야 함(BBiG 제86조).<sup>15)</sup>
- BIBB의 직업훈련에 관한 통계는 연방통계청이 모든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정보를 직업훈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BIBB에 전달한 것임(직업훈련법 제88조 4항). 이 관할관청에는 상공회의소가 포함되어 있어 상공회의소도 연방통계청에 통계자료를 전달하고 있음(직업훈련법 제88조 3항)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통계정보

- BIBB는 자격과 관련이 있는 직업훈련의 신규 훈련생수, 중도해지 훈련생수, 그리고 현재 훈련받고 있는 전체 훈련생수,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료생수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이 수료생은 결국 자격취득자 수이며 취득자의 연령별, 성별 및 학력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자격활용 정보

- BIBB는 직업훈련시장과 고용시스템(Ausbildungsmarkt und Beschäftigungssystem)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 기관(Institut fu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과 함께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관련 연구주제 : 직업자격의 수요와 공급 변화, 사업장의 직업훈련 참여도, 고용제도의 변화와 그것이 직업훈련에 미치는 영향 및 자격취득자의 고용의 이행 과정, 사업장에서의 훈련과 질적 수요의 변화에 대한 요인 등임.
-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과 BIBB의 연구데이터센터(Forschungsdatenzentrum)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
- 직업훈련보고서를 위하여 발행되는 2011통계보고서(Datenreport)는 사업장에서 훈련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가 그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을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IAB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함.
- BIBB 조사내용 : 자격을 취득하고 6년이 지나지 않은 15~35세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격취득 후의 고용형태

14) p.22의 ‘다. 연방 통계청’부분 참조

15) [www.zdh.de](http://www.zdh.de)

를 조사함. 이 조사는 설문대상자들을 조사시점에서 자격 취득 후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들과 자격 취득 후 4년과 6년 사이, 그리고 자격 취득 후 6년 이내의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성별 및 지역별(동독, 서독)로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업무, 실업, 자영업, 그리고 계속훈련 참여 등으로 고용형태를 나누어서 시행됨. 더불어 자격취득 후의 직업 전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VET 전체 자격정보 제공
  - 한편 BIBB는 연방 차원의 모든 VET 자격에 대한 정보를 포털로 제공함.
- 자격정보와 (직업 및 훈련정보의) 연계 현황
  - 직업자격과 관련된 직업정보는 노동청의 Berufenet사이트로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여기에 관련 직업과 훈련에 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함.

#### 나. 전문서비스 자격의 정보관리 현황(의사)

- 독일의 전문서비스 자격은 (이원화제도에 의해 운영되어 직능단체로부터 취득하는 직업자격과는 달리) 국가고시를 통해 획득하는 자격으로 의사, 교사, 약사, 변호사 등이 여기에 속함. 독일의 이런 자격은 일반 대학의 의학과, 교육학과, 약학과, 법학과 등 졸업을 기본요건으로 함.
  - 즉 독일 전문서비스 자격의 1차 검정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이며 2차 시험을 위한 계속교육은 각 자격에 연계된 직업협회에서 담당함. 여기서 다루는 의사자격은 1차와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1차 시험은 의과대학에서 4학기가 지난 후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필기와 구두시험 형태로 치르게 되며, 그 후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2차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자격을 취득함. 그리고 전문의 자격과 관련된 시험은 의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음.<sup>16)</sup>

#### □ 주(州) 단위의 의사협회(Aerztekammer, AK)<sup>17)</sup>

- 독일 내 모든 의사들은 본인이 속한 주의 의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16) <http://de.wikipedia.org/wiki/Staatsexamen> 참조

17) [www.aerztekammer-berlin.de](http://www.aerztekammer-berlin.de), [www.baek.de](http://www.baek.de), 베를린 협회법 참조

- 의사협회의 임무 : 관할권 내의 의사를 감독하며, 양성교육 및 계속교육을 촉진하고, 의사의 사회적 위상 유지, 의료상 직무의무와 계속교육 규율, 공보건 관련 입법에 대한 참여
  - 주 의사협회가 자격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음.
- 자격종목(검정)정보
- 각 주 의사협회 사이트는 전문의가 되는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규정 및 교육지침, 교육내용, 시기 및 검정(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의료관련 사무직(의사 보조, 치의사 보조, 수의사 보조 및 약국 판매원 등)의 양성훈련 및 자격검정에 대한 정보도 포털로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는 직업교육 및 기간, 직업요람, 검정과목 및 검정내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됨.
- 응시자 및 취득자 정보 생성 관리
- 각 주의 의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정보의 내용은 의사자격 취득자의 다양한 인별정보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 성명, 학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직업교육 사항, 직업 내지 기업면허, 계속 교육 및 향상 교육 사항, 발급 관청 및 그 감독관청, 전화번호, 최종 직업교육의 장소, 현재 혹은 종전에 등록했던 협회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직업 단체, 회비 및 경비 의무, 은행 계좌 내지 기타 입출금 기관 정보, 자율행정에서의 활동, 전문가에게 이수한 직업교육과 시험, 직업용 의무, 취업 조건 등(Berufsverzeichnisse)<sup>18)</sup>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통계정보
- 직업훈련법 제88조에 의하면 의사협회가 생성한 인별정보는 주 통계청과 연방 통계청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의사협회법(베를린 의사협회법 제14조)에도 협회가 감독관청이나 감독관청이 정한 특정한 곳에 직업 목록과 통계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도 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사협회에서 매년 발행되는 의사활동 보고서는 전문의가 되는 계속교육에 관한 정보와 의학관련 사무직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8) 아울러 의사협회는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에 근거하여 의사 보조, 치의사 보조, 수의사 보조 및 약국 판매원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시행하며, 직업교육생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국적, 이수한 직업교육, 학력, 교육기관명, 이수교육의 종류, 시험, 수수료 등의 정보도 관리하고 있다.

- 전문의 관련 통계정보 :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수 및 자격 취득자수, 전문의 분야별 신규 자격취득자수 등이 있고, 의학 관련 사무직 통계에는 신규 직업교육생수 및 자격시험 응시생수와 취득자수가 제공됨.

○ 자격활용 정보

- 의사의 노동시장 고용현황 정보 관리
  - 베를린 의사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의사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의사로서 개업을 하는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지 혹은 개인병원에 근무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와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의사로서 활동하지 않는(은퇴자 포함)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함.

○ 자격정보와 (직업 및 훈련정보의) 연계 현황

- 주 의사협회는 자격관련 교육정보와 직업정보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곳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연방 의사협회(Bundesaerztekammer, BAK)<sup>19)</sup>

- 연방 의사협회는 주 의사협회의 상급 연합체로서 의료분야 자율행정의 최상위 기관임.
  - 특히 의사 간의 관계 및 환자와의 관계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며(예: 의사의 침묵의무 규정), 계속교육과 전문의의 내용, 기간, 목표를 결정함.
- 연방 의사협회는 의사 자격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전문의 관련 계속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계속교육의 경우는 전문의 교육과 관련된 계속교육규정과 교육지침의 표본, 교육장소, 외국에서의 의사활동에 대한 인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자격 취득에 관한 정보로 의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의학과가 있는 대학의 소개, 각 주의 의사면허를 담당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9) [www.baek.de](http://www.baek.de) 참조

다. 연방 통계청<sup>20)</sup>

- 독일 통계청은 연방통계법(Bundesstatistikgesetz)에 근거하여 객관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발표하는 곳이며 통계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됨.
  - 이러한 연방 통계는 연방 통계청과 16개 주 통계청<sup>21)</sup>의 공동 작업으로 작성되며, 전반적으로 탈 중앙정부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연방 통계가 중복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방법에 의해서 시일에 맞추어 작성됨.
  - 연방 통계청의 과제에는 개별 통계 작성을 위한 방법과 기술의 구비, 연방 통계 프로그램의 개선, 통계 사이의 조정, 연방 차원의 결과 작성 및 발표 등이 포함됨.
  -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격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시자 및 취득자 정보 관리
  - 직업훈련법 제88조에 의하면 직업훈련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직업훈련 및 검정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 및 모든 협회에서 수집함. 연방 통계청은 이 정보들을 연방 직업훈련연구소에 제공해야 함.

<직업훈련법 제88조>

(1) 연례 연방 통계는 다음의 사항을 수집한다.

- 모든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여
  - a) 성별, 출생연도, 국적
  - b) 의무교육, 취업 예비 자격증 내지 기초 직업훈련 코스를 이수했는지 여부, 취업 예비교육
  - c) 직업훈련 경험(분야 포함)
  - d) 직업훈련을 제공받았던 기업, 사업 분야, 공기업 여부
  - e) 직업훈련을 받았던 연도, 직업훈련기간의 단축, 인턴사원(Probezeit) 기간
  - f) 직업훈련을 시작한 연도와 달, 조기에 종료하게 된 연도와 달
  - g) 단계별 훈련과정에서의 진급 여부(직업 분야 명기)

20)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참조

21) 주 단위의 통계 조사 및 자료 정리를 담당한다.



- h) 공적지원<sup>22)</sup>을 받는 직업훈련관계인 경우, 그 받은 지원의 종류
  - i) 최종 자격시험의 연도와 달, 시험 신청 요건; 재시험 연도와 달, 합격여부
  - 모든 수험자를 대상으로 하여(앞의 1번이 정하는 직업교육생은 제외): 출생연도, 이수한 교육, 자격시험 종류, 자격시험 성적
  - 모든 직업훈련지도자(Ausbilder) 대상으로 한 성별, 출생연도, 이수한 교육, 전문 기능의 종류
  - 모든 직업훈련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 출생연도, 이수한 훈련, 상담 활동의 종류, 전문 기능, 상담했던 기업
  - 제70조 2항에 의해 기업에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직업훈련 예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별, 출생연도, 국적, 직업 방향
- (2)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는 입력 사항이다. 이 데이터는 다음 번 통계 작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삭제되어야 한다.
- (3) 관할 관청도 신고 의무를 갖는다.
- (4) 직업훈련보고서 작성 및 제84조에 의한 직업훈련 연구 수행을 위해, 연방 통계청과 각 연방주 통계청은 1항 1~5번까지 나열된 개별 정보들을 연방 직업훈련연구소에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 직업훈련연구소에는 부서가 설치된다. 이 부서는 공간적으로, 조직 구성 차원에서, 인력 측면에서 연방 직업훈련연구소의 다른 업무 부문들과는 구분된다. 이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공직자 또는 공공업무 담당자여야 한다. 그들은 업무상 획득하게 된 정보를 오직 직업훈련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의 개별 정보들은 기타 신상 정보와 결부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전달, 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연방 훈련 연구부는 법령을 정하여 규율한다.

○ 응시자 및 취득자 관련 통계정보

- 자격통계를 포함하고 있는 독일 직업훈련 통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BIBB 통계와 달리,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수집되어 개별 직업훈련생별로 데이터가 작성될 뿐이고 직업차원의 종합데이터가 작성되지 않음.
- 파악되는 사항은 직업훈련생에 대한 상세한 정보, 신규 계약, 자격검정 데이터임. 특히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있는 다양한 사항들(계약 개시, 종료, 조기 해지, 최종시험)의 발생 연도와 달도 조사되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규 계약, 직업훈련생수, 해결책 등에 관하여 종합평가 값이 계

22) 특히 사회보장법 제3권(Drittes Sozialgesetzbuch)에 입각한다.

산됨. 나아가서 종전에 이수한 직업훈련 연수도 조사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상급과정의 계약 현황(Anschlussvertraege)도 파악됨.

- 수집된 자료는 보통 늦어도 늦여름까지는 개별 직종별로 정리되어 연방 차원의 자료로 발표되지만, 12월 31일의 자격을 포함한 직업훈련 통계에서 얻어진 결과는 노동청의 데이터와 결부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더하여, 기타 시험(외부 시험, 심화훈련, 재훈련, 훈련자 적성검사)에 관한 데이터, 직업훈련 인력(직업훈련 교관, 직업훈련 상담자)에 관한 데이터, 기업의 직업훈련 예비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 국가차원의 전체 VET 및 전문서비스 자격 통계정보

- 독일의 VET 자격관련 통계정보는 연방 통계청 사이트의 ‘훈련, 연구 및 문화(Bildung, Forschung, Kultur)’ 카테고리에 있는 직업훈련통계(Berufsbildungsstatistik)에서 제공되고 있음.
- 이외에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서비스 자격(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교사)은 직업훈련통계가 소개되어 있는 ‘대학 관련통계’ 파트에서 국가고시 해당 학과의 대학 입학자와 시험응시자 및 합격자 통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의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시험이 대학에서 시행되므로 대학 졸업시험을 통해 취득자들의 현황 파악 가능
  - 주 의사협회의 계속교육과 검정을 통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므로, 이는 계속교육통계에서 확인가능

라. 노동청의 직업정보망(Berufenet)<sup>23)</sup>

-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독일 전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곳은 이 직업정보망(Berufenet)임. 여기서는 모든 직종을 123개 부분 직종 내지는 16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별직종에 대한 지원요건, 훈련 및 검정에 관한 정보, 취득기능, 전망, 직업적 대안, 경향,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2년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 수학-정보통신-자연과학-공학관련 직업정보, 새로운 직업훈련 직종과 새롭게 개정된 직종에 대한 정보, 각 직종에 대한 최신동향 등이 소개됨.<sup>24)</sup>

23) [www.arbeitsagentur.de](http://www.arbeitsagentur.de), <http://berufenet.arbeitsagentur.de>, <http://www.iab.de/de/befragungen.aspx> 참조

24) 또한 이외에 각 직업별로 구직사이트 Jobbörse와 각 지역별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훈련기관, 직업학

- 독일의 직업-훈련-자격 정보연계의 용이성 배경
  - 독일의 직업분류체계의 특징, 즉 직업분류, 훈련분류, 자격분류가 한 분류 체계에서 만들어지므로 각각의 정보 연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짐.
  - 한국의 경우는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보의 연계 작업이 필요함.
  
- 노동청 산하기관인 IAB는 사회보장법 제3권(SGB III)에 의해 실업자 분야와 사회보장법 제2권에 준하여 취업자를 위한 기본보장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시행. 이외에도 인터뷰형식으로 매년 16,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고용정책에 대한 사업장설문조사를 시행함.
  - 이를 통해 얻은 정보 중의 일부, 즉 직업훈련 이후 자격취득자의 사업장 취업률 혹은 직업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비교, 자격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자격취득 분야와 직업과의 일치율 등은 BIBB에서 발행하는 Datenreport뿐만 아니라 BMBF(연방교육연구부)에서 발행되는 독일의 교육(Bildung in Deutschland)2010 보고서에서 제공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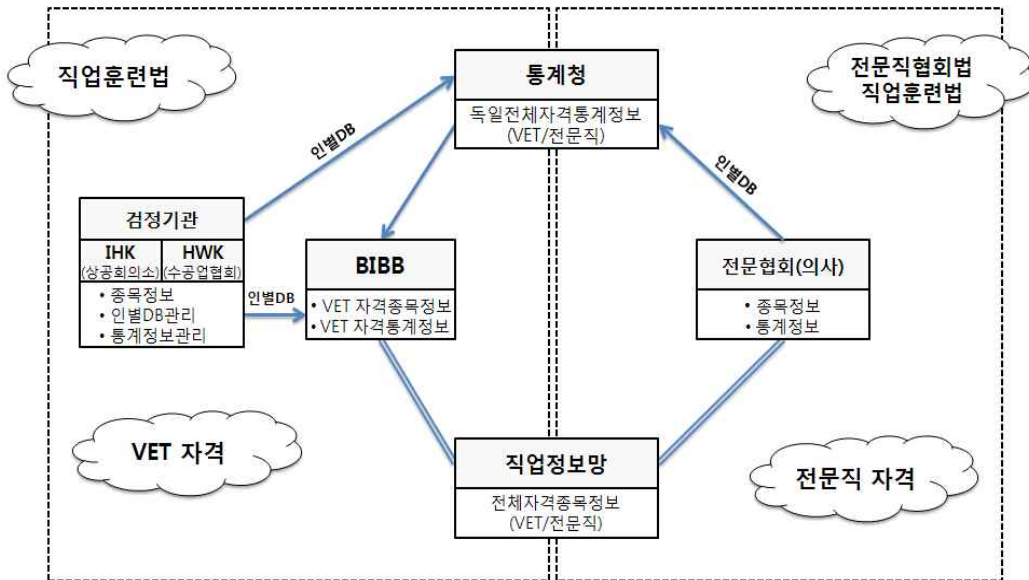
교, 대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Kursnet과 연계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 직업별 취업자 수 및 실업자 수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 기관(Institut fu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의 통계사이트와도 연계되어 있다.

## IV.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독일 자격정보 관리 현황

- 본 연구는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유형 중 연방직업훈련법에 근거한 ‘직업자격(VET자격)’과 전문서비스 자격 중 ‘의사’자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자격정보 유형별 관리 현황
  - 첫째, 자격종목정보
    - VET 자격의 경우 자격종목정보는 검정시행기관(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이 가장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연구기관인 BIBB도 종목별로 다양한 정보를 포털로 제공하고 있음. 검정기관 및 BIBB가 제공하고 있는 자격종목 정보는 노동청의 직업정보망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자격관련 직업 및 교육훈련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음.
    - 전문서비스 자격(의사)의 경우 의사협회가 자격 검정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
    - VET 자격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자격까지 자격종목정보를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노동청의 ‘직업정보망’임. 즉 독일의 직업정보망은 독일의 직업을 중심으로 관련 모든 자격을 포털로 소개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둘째, 응시자 및 취득자 통계정보
    - 개별 인별정보 관리 : 통계정보는 인별 정보로부터 만들어지며, 이 인별 정보는 일차적으로 검정기관이 생성 및 관리하고 있음. 즉 예를 들어 VET 자격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협회가 이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의사 자격의 경우는 의사협회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관리해야 할 내용 또는 항목은 직업훈련법과 의사전문직협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격정보의 통합 : 검정기관은 이러한 인별 정보를 통계청으로 보내고 통계청은 VET 자격 및 전문서비스 자격 등 독일의 모든 자격의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포털로 서비스하고 있음. 이러한 통합정보 제공은 직업훈련법과 의사전문직협회법에 근거함([그림 3] 참조).

[그림 3] 독일 자격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



- 셋째, 자격활용정보
  - 독일 직능단체 중 가장 큰 조직인 상공회의소는 최근 사업장대상으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격취득자의 취업현황에 대해 온라인 (on-line)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있음.
  - BIBB도 사업장 설문조사를 통해 직업자격의 수요공급 변화를 조사하고, 자격취득자의 사업장 취업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제작함.

○ 자격정보 관리 주체의 역할 분석

- 검정기관: 본 연구대상 자격의 검정기관은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및 의사협회이며, 이러한 독일의 검정기관은 종목정보, 인별정보, 통계정보 및 활용정보를 생성하고 있음. 즉 자격정보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업무를 검정기관이 하고 있음.
- 통계청: 검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생성한 각 자격별 통계정보를 포털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함. 즉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 정보는 VET자격 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자격도 포함됨.
- 노동청: 검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생성한 각 자격별 종목정보를 포털로 관리함. 즉 노동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VET 자격 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자격도 포함.
- BIBB: VET자격의 종목정보 및 통계정보를 포털로 관리함.

○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및 서비스의 특징

- 첫째, 자격종목정보 뿐만 아니라 통계정보도 포털로 서비스되고 있음.
  - 종목정보의 경우 : VET 자격은 BIBB가 포털서비스를 하고, 독일 전체 자격(VET 자격 + 전문서비스 자격)은 노동청의 직업정보망에서 포털로 서비스하고 있음.
  - 통계정보의 경우 : 통계청이 VET 자격뿐만 아니라 전문서비스 자격 관련 통계정보를 모두 포털로 제공하고 있음.
- 둘째, 통계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는 ‘연방직업훈련법’과 ‘전문직협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즉 ‘연방직업훈련법’과 ‘전문직협회법’에 근거하여 검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자 개인정보는 궁극적으로 연방직업훈련연구소인 BIBB(VET 자격의 경우)와 통계청(VET 자격+전문서비스 자격)으로 보내어져 전 국민에게 자격통계정보가 유용하게 포털로 제공됨.
- 셋째, 자격의 활용정보도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취업현황을 (포털을 아니지만) 파악하여 제공하고 있음.

## 2. 한국과 독일의 비교

○ 한국과 독일의 자격제도 비교(차이점)

- 자격운영주체: 독일의 자격검정은 전통적으로 산업체 대표 혹은 직종별 전문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이는 2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첫번째는 검정기관(직종별 전문단체)이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배출에 책임감을 가짐. 그 이유는 배출한 전문인력을 결국은 산업체가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임. 그리고 검정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자격의 현장성이 매우 높음. 그 배경은 직종별 전문단체는 주기적으로 숙련수요(skill requirement)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출제기준에 반영하기 때문임. 한국의 경우는 직종별 단체가 자격검정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임.
- 자격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일반적으로 독일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자격정보가 교육훈련정보와 동시에 관리됨. 반면 한국의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제도와 무관하게 독립된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격-훈련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 자격분류체계: 독일의 자격분류는 훈련분류 및 직업분류와 동일한 체계속

에 있어 (즉 자격이 해당 훈련 및 직업의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용이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직종과 관련한 훈련과정(고용가능 단위의 훈련과정)을 2-3년간 이수하고, 그 직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자격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합격자, 즉 자격취득자는 미취득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형성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자격취득자는 자격과 동일한 직종에서 숙련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는 자격종목의 크기와 내용이 고용가능 직종 크기 및 직무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즉 너무 작은 직무의 자격이 신설되거나, 너무 큰 직무의 자격이 만들어져 직종-자격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한국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훈련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한국과 독일의 자격정보 관리 비교

- 한국에서 자격의 활용정보는 국가기술자격이든 개별법의 국가자격이든 전반적으로 생성 및 제공되고 있지 못함.
-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이 활용정보만 제외하고 종목정보나 통계정보는 상당히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 즉 종목정보와 통계정보의 경우 오히려 독일보다 관리항목이 많은 편이고 512개 자격종목의 정보가 Q-net을 통해 포털로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개별법의 국가자격인데 이 자격의 종목정보 및 통계정보의 내용은 부처마다 제각각임.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흩어져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이 자격의 유형에 해당되는 독일의 전문서비스 자격인 의사자격의 정보관리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음. 종목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가 다 제공되고 있음.
- 독일은 우리와 달리 통계청이 자격 통계정보 통합관리에 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격정보관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 통합화 방안과 자격정보 중 특히 활용정보를 생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sup>25)</sup>.

---

25) 개별법의 국가자격의 경우, 종목정보와 통계정보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의 정보내용에 준하여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3. 독일사례가 한국 자격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 ○ 자격의 활용정보 생성 방안 마련

- 독일은 취득자 추적조사나 사업장 조사(on-line조사, 설문조사 등)를 통하여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을 분석하여 고용형태, 직업 전환, 소득, 자격과 직업과의 일치율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별부처가 제공하는 여러 자격정보(기본정보, 시험정보, 통계정보, 활용정보) 중 가장 부족한 정보이면서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자격의 ‘활용정보’임. 따라서 이 활용정보의 생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한편 저비용의 조사를 통해 이 활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독일의 경우 BIBB는 매년 자격취득자의 고용현황 및 자격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만들고 있음.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자격의 활용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연보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여야 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행정 DB임. 즉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DB와 자격취득자DB를 연계하여 취득자의 고용현황 및 소득(임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임.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자료를 연계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임. 하지만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졸업생 DB와 건강보험 DB를 연계하여 졸업자의 취업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이러한 연장선에서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현황파악도 가능하리라 판단됨.<sup>26)</sup>
- 고용 및 소득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정성적 정보도 생성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직무만족도, 동일직무분야로의 취업 등의 정보가 포함됨. 독일의 경우 저비용의 자격활용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on-line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정성적인 자격의 활용정보 생성을 위해서는 취득자 대상의 저비용의 web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이때 조사주체는 부처, 검정기관, 협회 등이 될 수 있으나 취득자의 회원관리가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회가 이 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 부처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임. 독일의 경우 전문직 단체가 수행함.

26)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졸업생 DB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DB를 연계하여 현재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몇 년동안에는 부처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해 동안 끊임없는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이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격취득자의 취업률 등 노동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부처간 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직업-훈련-자격정보의 연계와 각 정보의 코드 연계

- 독일의 자격은 직업 및 훈련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직업정보-자격정보-교육훈련정보가 상호 완벽하게 연계되어 개인의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따라서 모든 자격의 종목정보는 직업 및 훈련정보와 함께 연방노동청의 직업정보망에서 포털로 제공되고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직업분류상 직업의 세분류에서 훈련직종과 자격종목이 만들어지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직업과 관련성이 낮게 자격종목과 훈련직종이 만들어지며 또한 자격과 훈련은 오랫동안 각기 다른 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독일처럼 직업을 중심으로 자격 및 훈련정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망들을 연결해야 함.
- 자격정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훈련 및 직업정보와 연계될 때 더 유의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냄. 즉 자격과 직접 관련된 직업과 훈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 취득자는 어떤 업종·직종에서 일을 하는지, 임금은 비취득자에 비하여 높은지 등의 정보는 진로상담의 질을 높이게 됨. 하지만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자격정보망(Q-net)과 직업정보망(워크넷)은 연계라기보다는 링크된 수준이며 관련정보의 양도 부족한 실정임.
- 일-자격-훈련의 각각 정보가 제대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DB 간 연계가 필요하며 포털로 효과적으로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및 직업과 자격의 체계적인 코드 연계가 필요함. 연결방식은 일대일 방식의 하드매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대일의 소프트(스마트) 연계방식이 되더라도 코드의 연계가 정보 효율화를 우선시하여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일-자격-훈련정보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개별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임.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Q-net으로 정보가 통합되어 있지만 개별법의 국가자격 정보는 분산관리 되고 있기 때문임.

○ 개별 자격정보의 통합화와 법개정

- 독일의 경우 모든 자격 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포털로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음. 그리고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별정보는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로 전달되어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행정보고 자료로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들이 통합될 수 있는 배경은 관련 데이터를 통계청과 BIBB로 송부를 강제하는 법규정(직업훈련법 제88조)이 존재하기 때문임.

개별 자격정보가 각각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독일 사례로부터 알 수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기본법의 제10조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각 중앙행정기관 장의 책임으로 주어지고, 이렇게 관리되는 정보 중 일부를 연계하는 것은 시행령 제21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없음. 현재 자격정보의 연계 또는 통합화와 관련된 유일한 규정은 자격기본법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하여 자격취득자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보연계의 임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시행령’수준이 아닌 ‘법률’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특히 독일의 전문서비스 자격의 경우도 포털로 제공되고 있음. 다만 포털 관리주체가 통계청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개별법의 국가자격을 연계하는 권한은 자격기본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흩어져 있는 개별법의 자격정보를 연계하고 자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된 자격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함.<sup>27)</sup>

#### ○ 인별정보 관리의 체계화와 법개정

- 독일의 경우 관리되어야 하는 자격과 관련된 연방 통계정보 내용은 연방 직업훈련법 제88조 및 (의사)전문직협회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별법의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근거법에 이러한 자격취득자의 인별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 먼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격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정부는 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개별 부처의 통계정보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서비스되기 위해

27) 독일은 모든 통계가 통계청으로 모여지는, 즉 통계집계의 중앙집중화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재 한국은 통계집계의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중간 형태인 절충식 국가이다(이는 통계청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가기술자격통계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생성하지만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이므로 통계청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개별법의 국가자격 통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집계하더라도 추후에는 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받고 독일처럼 통계청으로 보내어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자격통계를 포털로 서비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는 응시원서 양식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응시원서 작성내용 중 전공, 직업, 응시목적, 경제활동상태 등은 응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격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며 취득 당시의 개인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대체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국가자격의 근거법에 취득자의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최종학교명, 전공 등 학력사항, 직업, 응시목적, 경제활동상태, 자격내용(종목, 분야, 취득연도),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전문직협회의 기능 강화

- 독일의 경우 전문서비스 자격의 활용정보는 주로 전문직협회가 생성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협회의 경우 이러한 업무에 관심이 낮은 편임. 따라서 전문서비스 국가자격의 활용정보를 다양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협회의 자격정보생성 능력을 배양하도록 부처의 지원이 필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검정도 전문협회가 할 수 있도록 부처의 지원이 필요함. 독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전문직협회의 역할이 많으며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2-2016)』.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자격제도 유관기관협의회 논의자료(미발간)』.
- 이동임(2011). 『최근 독일자격제도의 변화』, working pap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 외(2012). 『국가자격의 정보 체계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발간)』,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베를린 협회 규정(Berliner Kammergesetz)
- 독일 수공업 규정(Handwerksordnung)
- 독일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BBiG)
- Daniel Schmidt(2011). *Die neue Berufsbildungsstatistik ab 2007*.
- [www.aerztekammer-berlin.de](http://www.aerztekammer-berlin.de)
- [www.arbeitsagentur.de](http://www.arbeitsagentur.de)
- [www.baek.de](http://www.baek.de)
- [www.berufenet.arbeitsagentur.de](http://www.berufenet.arbeitsagentur.de)
- [www.bibb.de](http://www.bibb.de)
- [www.de.wikipedia.org](http://www.de.wikipedia.org)
-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www.dihk.de](http://www.dihk.de)
- [www.dihk.de/ressourcen/downloads/ausbildungsumfrage\\_10.pdf](http://www.dihk.de/ressourcen/downloads/ausbildungsumfrage_10.pdf)- Ausbildung2010
- [www.handfest-onlind.de](http://www.handfest-onlind.de)
- [www.handwerk.de](http://www.handwerk.de)
- [www.handwerksberufe.de](http://www.handwerksberufe.de)
- [www.handwerks-power.de](http://www.handwerks-power.de)
- [www.iab.de/de/befragungen.aspx](http://www.iab.de/de/befragungen.aspx)
- [www.planet-beruf.de](http://www.planet-beruf.de)
- [www.zdh.de](http://www.zdh.de)